

이제 정상회담은 국제관계에서 일상적인 일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11월 19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정상회담은 특별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럽 재래식전력감축(CFE : 23개국) 및 신뢰·안보구조조치(CSBM : 35개국) 협상에 의해 나토와 바르샤바조약(WP)국가간의 군사적인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1989년에 계획된 파리정상회담은 냉전종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파리에 모이는 각국 정상들이 서명할수 있도록 CFE조약에 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양 진영간 관계개선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상회담 6주전까지도 기본적인 몇몇 이슈(issue)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소련의 육상배치 해군 항공기, 조약에 의해 폐기되는 장비들의 검증 회수, 잔여 장비들의 각국별 할당규모등이 관련되어 있다.

결정적인 것은 타이밍이었다. 미국의 CFE협상 수석대표인 James Woolsey 대사는 브뤼셀방문중 제약조건들을 지적하였었다.

일단 합의가 이루어졌을때 2백여 페이지의 본문과 2백여 페이지의 자료를 조약문안으로 작성해야 하고, 참고자료를 검토한후 5개 국어로 번역해야만 했었다.

이로 인하여 4주에서 6주정도가 소요되었고, 비엔나에서 합의되지 못한 3개의 주요분야를 다룰 시간이 거의 없게 되었다.

이 회담은 초기에 지금까지 없었던 근본적인 난관에 봉착했었다. 1989년 CFE가 시작될때의 목적은 유럽내의 세력균형을 위해 재래식 전력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우세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협상을 통하여 각 「해당국(조약문안에 두 동맹기구가 표시되어 있음)」 별로 소위 “조약한도 장비”인 전차, 장갑차(APC), 화포등의 전체수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이 지역내에서 한 나라가 이러한 장

비—특히 전차—를 보유하는 비율(「충분」조건으로 알려져 있음)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그 이유는 쉽게 알수 있었다.

동독은 9월 24일 공식적으로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탈퇴하였으며, 헝가리도 이 기구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1990년말 탈퇴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체코도 역시 탈퇴를 희망하고 있으며, 과거 소련 통제하에 있던 다른 회원국들의 성실성도 믿기 어렵게 되었다.

9월 24일 바르샤바조약 국방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장비들의 각국별 보유량에 합의할수 없었다. 또한 대부분 더 많은 감축 할당량을 원하는 NATO회원국들과는 달리, 이상하게도 바르샤바조약국가들은 더 많은 개별 보유량을 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느 한 나라가 그 진영내 조약한도 장비 총량의 30% 이상을 보유할수 없다는 사전양해가 비엔나에서 이루어졌지만, 소련은 40%를 원하였다. 바르샤바조약으로서는 이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一笑一少一怒一老

초보운전의 아이러니

어떤 친구가 새로 차를 사게 되어 선배의 조언을 듣게 되었다.

그 내용은 앞차만 따라가면 큰 사고가 없을거란 것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앞서가던 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이 친구가 그만 들이받고 말았다.

그러자 이 친구가 차에서 뛰어내리더니 버럭 화를 냈다.

『여보, 당신 정신있는 거요? 이렇게 갑자기 급정거를 하다니!』

그러자 앞차의 운전자가 나즈막한 소리로 점잖게 말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당신 남의 집 차고(車庫)에서 뒤흔고 있는 거요?』

나토는 전반적으로 매우 전향적이었다. 나토는 동독의 할당량을 서독 분량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나머지 바르샤바조약국가들은 여전히 애초 2만대의 전차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통일 독일은 가장 많은 양(약 2천대)을 감축해야만 하였다.

또 각국의 최대 점유율을 33%까지 늘리는데 합의하여, 소련이 1만3천대의 전차를 보유할수 있도록 하였다.

나토는 심지어 소련이 추가적으로 3백대(이는 전체의 1% 미만)를 요구하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협상은 숫자문제로 난관에 봉착하였다. 오히려 다른 바르샤바조약국가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한편으로 이들 국가들이 소련의 세력이 더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권리를 자국이 갖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회의 직전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토측 협상자들은 각 진영 2만대의 전차라는 총량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 각국의 수량을 발표하는 것은 6개 동구권 국가들의 사항이라는 것에 그렇게 놀라지 않았다.

검증의 어려움은 각국이 자국 영토에서 행하는 「요청 검증」의 횟수와 관련되어 있었다. 최근야야 외국인들이 자국의 군사시설을 탐색할수 있도록 원칙을 변경한 소련은 나토회원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횟수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서방측에서 상당한 양보를 하기는 하였지만, 최소한 요구는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현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미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더구나 분명했던 것은 이들 조건이 미국의 상원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조약에 대한 비준이 어려웠을 것이고, 이 점은 소련도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독일도 군사장비가 가장 집중되어 있었던 국가로서,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하였다. 그러나 양측 군대의 철수가 시작됨으로써 이는 급격히 감소될 것이며, 조정이 기대되고 있다.

해군항공기와 관련된 장애는 훨씬 심각하였다. CFE 회담을 위한 합의문에는 해군력이 제외되었으며, 나토의 견해로서는 미국의 함재기—소련은 이를 포함하기를 희망—가 진정한 해군 항공으로 특정지역이나 대륙에 소속될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의 지원하에 이를 계산에 포함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이와 같은 입장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서방측은 주로 Backfire 폭격기와 MiG-29 전투폭격기로 구성된 소련의 육상배치 해군항공기가 육상목표를 공격하도록 되어있고, 표식의 색깔에 의해서만 다른 항공기와 구별될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구나 서방국가들은 전방의 비행장에 있는 육상배치 항공기가 해군항공 기지로 이동한 것에 놀랐으며, 이것들은 색깔만 약간 다르게 칠하면 다르게 분류될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소련 공군은 우랄산맥을 넘어서 대규모의 비행기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지역밖에 있으므로 계산에 포함할수 없는 것이었다.

상당한 협상을 거친 다음 이 문제들은 해결되었다. 서방 국가들은 이 이동이 필요한 것이라는 소련의 설명과 조약을 위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소련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또 5천1백30대의 한도외에 4백대의 소련 육상배치 해군항공기 보유도 받아들였다.

이 숫자는 조약이 아니라 서명시 특별서명으로 결정될 것으로, 추후 정기적으로 재확인될 것이다. 다른 해군 항공기는 진정한 해군력이므로 협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1990년 10월말 현재로 볼때 전반적인 형태는 전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명시까지는 이것이 단지 약속만으로 약속된 부분계약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SCE 정상 회담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냉전의 공식적인 종식은 11월 19일 파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換)

〈Milttech 90/11〉